



세계의 에이즈

에이즈고아-2010년까지 3천만명

에이즈로 인해 오는 2010년까지 3천만명의 고아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90%인 2천8백만명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국제개발청의 존 윌리엄스는 지난 13일 국제에이즈 회의에서 '위기



에 처한 어린이들 2000' 보고서를 통해 아프리카는 조만간 이러한 불안한 청소년들로 넘쳐날 것이며 이는 큰 사회적 불안요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윌리엄스는 "교육받지 못하고 영양이 부실하며 소외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찬 젊은 세대가 양산될 것"이라며 이는 전쟁이나 기아가 초래한 불행보다 더 큰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에는 이미 두 부모 중 한 사람이 이상을 잃은 15세 이하 어린이가 1천 6백만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90%가 사하라 사막에 몰려 있다.

이같은 수치는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돼 5세 이하에서 대부분 사망하는 어린이들을 제외한 것이다. (경향신문, 07/15)

"에이즈환자 따돌림 역효과 심각" 정광모 회장 인터뷰

"10~19세 에이즈 환자가 24명이나 됩니다. 성개방풍조 확산으로 에이즈 예방에 기여했던 유교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죠. 예방을 위해 교육도 좋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과 지도층이 건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광모(鄭光謨·71) 대한에이즈예방협회장은 현재 에이즈(AIDS) 바이러스(HIV) 감염자가 최근 국립보건원이 밝힌 환자수(1,173명)의 약10배로 추산된다고 하며, 특히 매년 환자수가 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협회 에이즈정보센터에는 청소년을 비롯, 하루에도 10건 이상 전화·인터넷 상담이 들어온다"며 "감염이 의심되지만 두려워 진찰조차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밝혔다.

협회는 환자와 HIV 감염자들을 위해 서울 등에 비공개 쉼터를 운영하며 주 1~2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교사, 보건소 직원들을 상대로 순회 예방교육도 실시중이다. 그는 에이즈 환자들은 신체적 고통보다 가족·직장으로부터의 고립과 관련약품 구입과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 환자의 경우 가족의 보호아래 죽을 때까지 정상생활을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발병확인 즉시 대부분 가정이 파탄나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한다.

그는 "환자쉼터를 만들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꺼리고 병원도 소문이 날까봐 환자진료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후불제인 정부지원 진료비 결제방식을 바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회장은 "환자를 고립시키면 복수심에 찬 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며 "정부가 빨리 인권보호적 환자관리정책을 세우고 사회도 환자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07/18)

동남아 최대 안보위협은 에이즈

매들린 울브라이프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동남아에서 확산일로 상태인 에이즈가 이 지역 안보와 보건 및 개발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브라이프 장관은 이날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 각료회의의 연설을 통해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에서 확산일로에 있는 에이즈 및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 그 규모 면에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이 지역 보건과 안보 면에서 "이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울브라이프 장관은 미국이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에이즈퇴치노력을 펴고 있고 지난 해 캄보디아에 일본과 공동으로 전문가들을 파견한 바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이러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07/28)

남아공 각료 3명 에이즈 사망

남아프리카공화국 주변국의 정부각료 3명이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대통령이 6일 언급. 만델라 전대통령은 요하네스버그 부근의 한 놀이공원에 초청된 어린이 수백명에게 "우리 세대에는 이미 많은 에이즈의 공포를 경험했으나 여러분이 자라나서 성인이 될 때는 더 이상 에이즈로 인한 고아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 (동아일보 08/08)

에이즈 용병선수 들어올뿐 - 프로축구 입단 테스트서 브라질 선수 양성반응

최근 입단테스트를 받기 위해 입국했던 외국 축구선수가 에이즈감염자로 판명됐다. A프로축구단은 남미 브라질 프로축구단 출신의 B(28) 선수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약직전 B 선수가 에이즈감염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구단은 구단대로 선수들은 선수들대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내 선수들은 외국선수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축구연맹 측은 "외국인 선수들은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뒤 취업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활약 중인 선수 중에는 에이즈감염자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08/11)

말라위-국회의원 29명 에이즈 사망

아프리카 국가인 말라위에서 국회의원 29명이 지난 4년간 에이즈로 사망했다고 삼 음과수 국회의장이 10일 공개했다.

음과수 의장은 의원들의 에이즈 발병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를 공개하기로 했으며 의원들의 에이즈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말라위의 전체 의원 수는 193명이며 말라위는 성인의 에이즈 감염률이 1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한국일보, 08/11)

美, 96년도 AIDS 치료 비용으로 약 70억달러 지출

지난 96년 미국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반응을 보인 환자를 치료하는데 67-78억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에이즈 관련 저널에 발표된 연구조사가 밝혔다.

이를 환자 1인당 경비로 환산하면 연간 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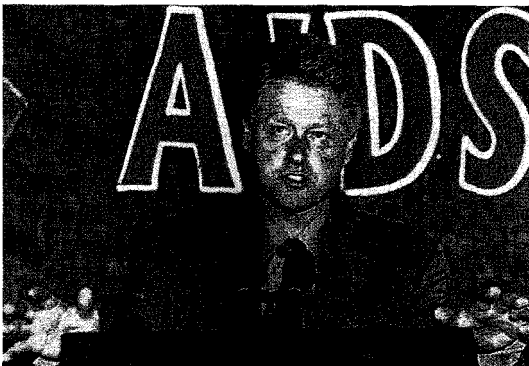
만~2만4천700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 된다.

HIV 치료비를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은 복잡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미국 보건연구품질국(AHRQ)은 여러가지 데이터를 조합한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같은 측정치가 상당히 공신력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용된 HIV 치료비 산출방법은 "환자를 기준으로 한" 방법이 사용됐다. 이는 HIV 환자 중 일부의 경험을 토대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AHRQ는 "비용 부담자"에게서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의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데이터와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받는 자금을 기준으로 한 데이터를 기존의 측정치와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연구진은 이처럼 각각의 방법을 조합한 결과, HIV 환자의 치료비는 환자를 기준으로 측정했을 때 최저 67억 달러에서 비용 부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78억 달러까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로이터인터넛, 08/14)



에이즈 확산

멕시코 에이즈 인구, 1년에 23% 씩 증가

멕시코의 에이즈 인구가 지난 7년간 한해

23%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시티 병원의 에이즈 전문 연구진은 1년에 4천명이 에이즈 환자로 신규 등록돼, 총인구 9천700만명중에 에이즈 인구가 4만2천672명이라고 공식 집계했다.

그는 "지난 7년간 연간 평균 증가율이 23%를 기록했다고 전하고, 등록되지 않은 환자까지 합칠 때 약 15만명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립 에이즈 지원 단체인 '아미고 콘트라 라 시다(SIDA)'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멕시코 에이즈 인구가 6만7천707명에 달했으며 27만428명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 08/09)

브라질 가정주부들 사이에 에이즈 확산 추세 - 브라질 보건부

급년 전반기에 브라질에서의 에이즈 확산은 둔화했으나 여성 감염자, 특히 가정주부들의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브라질 보건부가 31일 발표했다.

브라질에서 이 기간 동안 에이즈 감염 사실을 등록한 환자의 수는 6%가 증가한 반면 감염 여성들의 숫자는 9%나 급증했다고 보건부 대변인은 말했다.

대변인은 비교치는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수치가 에이즈 감염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1998년 8월에서 1999년 말까지는 에이즈 환자가 36%가 증가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에이즈가 동성연애자나 약물중독자들 사이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제 가장 우려되는 집단은 여성들로 특히 시골에 사는 가정주부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여성 환자는 아직 총 환자 수의 1/4인 47,949

명에 지나지 않지만, 229개 마을에서는 이미 여성 에이즈 환자가 전체의 1/3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 감염 여성의 반 이상이 20-39세 사이였다고 보건부는 전했다.

보건부는 브라질에서 에이즈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후로 환자 등록을 한 총 190,949명 중 반수가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민간 연구 기관들은 감염 환자 숫자가 5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로이터 인터넷, 09/02)



에이즈 연구

에이즈/간염 피 혼합물로 간단히 진단-서울대 교 수팀 '단백질 칩' 개발

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3가지 질병을 혈액 한 방울로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새 단백질 칩이 기술이 개발됐다. 8일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선영교수와 기계항공공학부 박희재교수는 기존의 진단방법(ELISA)에 비해 시간을 4분의 1로 단축할 수 있고 원가를 100배 이상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진단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교수팀이 개발한 초소형 진단키트는 500여개의 단백질까지 삼을 수 있어, 한 사람을 대상으로 500가지 질병을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다. 김교수는 "현재에는 3가지 정도의 질병만 진단할 수 있다"라며 "임상시험을 거쳐 2001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08/09)

에이즈환자-사회적 지원과 자신감있으면 복약준 수 향상

위스콘신의과대학 정신,행동외과 Sheryl L.

Catz교수팀은 약제를 바르게 복용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신을 후원해주는 친구와 기타 네트워크를 가진 HIV감염자 및 에이즈환자는 복잡한 복약계획을 지킬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리의 소견은 정신적 지원이 부족한 환자는 정신기능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법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신보건 및 지원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치료법을 지킬 자신감을 강하게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은 특히 치료시작 시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투데이, 08/17)

에이즈 약 중단 후에 면역 세포 회복됨 - 미국 연구진

에이즈 약 치료를 중단한 후에 면역 체계가 오히려 강력하게 복구될 수 있다고 미국 연구진이 30일 밝혔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위스타 연구소의 루이스 몬테너 박사는 HIV 약 복용을 잠시 중단하기로 결심한 환자들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에이즈 치료약을 1회 혹은 2회 중단 후 몇 달 연속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만큼 면역체계가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몬테너 박사는 HIV 약 복용을 스스로 중단한 환자 5명의 CD4(보조세포)가 빠르게 회복됐으며, 살세포인 CD8(살세포)도 회복되었다면서 이는 신체가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용중단을 혼자서 실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로이터인터넷, 09/02) A